

급사 · 돌연사 · 과로사

—急死 · 突然死 · 過勞死—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은 세계의 각 나라가 주목할 만큼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거리에는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와 우리의 일상생활은 풍요속에 부족함을 모르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과 경제발전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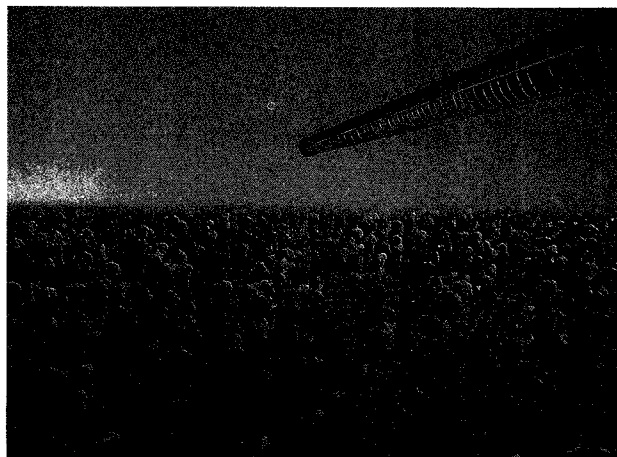
이러한 번영과 발전의 부산물로 '과로' '스트레스' 등과 같은 과거에는 좀처럼 문제되지 않았던 용어가 어느새 우리주위에서는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건강하던 사람이 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증상을 보이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 급사, 돌연사가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급사 · 돌연사 및 과로사의 개념

급사 · 돌연사에 대한 정의는 의학의 각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른 정의를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때까지는 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용태가 나빠져 사망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때는 별로 이의가 없으나 갑자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시간한계로 할 것인가에는 차이를 보인다.

내과분야에서는 어떤 증상이 출현되어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돌연사, 또 1주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급사 또는



“ 산업발전과 함께 요즘 예기치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 급사, 돌연사가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

급성사(急性死)라고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법의학 분야에서도 어떤 증상이 출현되어 30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돌연사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급사라고 정의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급사, 돌연사는 예기치 못한 가운데 죽음의 기전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죽음뒤에는 언제나 아쉬움과 의문이 남게 마련이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이르는 또 하나의 죽음으로서 과로사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과로사는 급사 및 돌연사와도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으로 과로사는 과로가 방아쇠가 되어 몸안의 장기, 특히 심장, 뇌 및 기타 중요장기의 조화가 파괴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과로사라는 죽음은 어떤 증상이 시작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아닌데 반해 급사 및 돌연사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 없이 죽음에 이르는 경과가 속히 진행되는

것을 표현한 죽음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급사 및 돌연사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죽음의 기전이 급속히 진행되었을때에 사용되며 과로사는 죽음의 기전이 속히 진행되건 느리건 간에 그 원인에 과로가 포함되 있는 것을 표시하는 사회의학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신체에 있어서는 과로사가 급사 또는 돌연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사·돌연사 및 과로사가 구별되지 않은 가운데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해 혼선이 초래될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 그 죽음에는 아쉬움이 남고, 억울함이 개재되고,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원인, 기전 등을 밝혀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범의부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간 법의 현장에서 취급된 돌연사를 중심해서 유족, 직장동료 등과 같은 사망자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지견 특히 사망자의 죽기전의 어



우리가 돌연사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조적인 증상을 경고신호로 삼아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전조(前兆)적인 증상 또는 행동을 통해 어떤 경고적인 Signal(신호)이 될 수 있지는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환자가 이미 쓰러져 응급실로 운반되었을때는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후이기 때문에 그 환자로부터 돌연사의 어떤 전조적 증상은 들을 수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돌연사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조적인 증상을 경고신호로 삼아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다는 것은 돌연사를 예방하고 모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사례와 그 전조증상 및 사인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50세된 가정주부의 돌연사

50세된 가정주부 B씨는 남편과 두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몇일전부터 눈의 깊숙한 안쪽이 아프다고 해 남편은 안과에 가도록 했었다 한다. 안과에

다녀온 부인은 병원의 의사선생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에 일단은 안심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눈의 동통은 있을만 하면 생길 정도로 1주에 한번 또는 10일에 한번정도로 눈의 깊숙한 곳에 동통이 생겼다가는 사라지곤 해서 부인은 가정의학 책을 보고 혹시나 녹내장(綠內障)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증상이 마치 녹내장과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불안을 느낀 B부인은 다른 안과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으나 그 병원에서조차 별다른 이상이 없고 단지 안압(眼壓)이 다소 높을 정도일 뿐이라고 하며 특별히 치료받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눈의 동통은 때때로 있어 심할때는 진통제를 먹으면 사라지곤 했다.

B부인은 그후에도 여러 안과병원을 찾아 보았지만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의견들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동통을 처음 느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날 밤 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와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에 갔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가족의 요청에 의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부인은 뇌동맥류(腦動脈瘤)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이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전조증상은 있었으나 그것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 사망한 경우도 있다. 卍

내가 산 썰 한장 이웃위한 작은정성